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합양은 재배의 적지  
● 합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합조력 증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들끓는 흰개미**



◊전북 남원 실상사 역사전. 보물 제41호인 칠채여래좌상(국보 제13호)이 봉안된 곳이지만, 흰개미 공격을 받아 정면 출입구 기둥 아래쪽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파여있다. 흰개미는 기둥 아래에서 위로 이동, 결국 서까래와 지붕까지도 공격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



◊얼굴과 어깨까지는 도드라지게 새기고 그 밑은 간략하게 선각으로 처리한 덕주사 마애불.

## 아름드리 기둥도 주저 앉는다

“흰개미들이 목조건축재를 다 먹어치운다.” 국보와 보물급 목조 문화재들이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임업연구원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임업연구사업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보·보물 지정 목조 문화재 69개소 가운데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제915호), 전남 순천 실상사 극락전(유형문화재) 등 33개소가 흰개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부지역의 사찰 대부분이 흰개미 피해를 받고 있지만, 목조 문화재를 개·보수하는 목수조차 흰개미를 잘 알지못해 식재(食害)중인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피해실태** 임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위사 극락보전, 법주사 대웅전, 실상사 극락전 등은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과정에서 생긴 누런 나무가루가 분출하다 2~3mm 두께로 쌓여 있었다. 특히 흰개미는 대들보 위쪽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지붕 구조물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커 시급한 조사가 요구된다.

경남 양산 통도사 역사전의 기둥 8개 가운데 5개가 흰개미의 공격을 받았다. 밑둥을 갉아먹어 오픈목 기둥은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서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으며 뒤 원목과 통이 기둥은 손 닿는 부분까지 속이 비어 두드리면 ‘뚱뚱’ 소리가 난 정도.

경북 영천 은사사 거조암 영산전(국보 제14호)은 바닥에 약 1cm 두께의 소변지를 깔아 습기가 건물 내부 기둥쪽으로 집중 방출돼 습기로 축적된 기둥은 흰개미에게 최상의 먹이가 된다. 그러나 사찰측은 흰개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습기제거를 위해 기둥 밑 주춧돌에 휴지를 깔고 제습제를 갖다 놓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흰개미가 기둥은 물론 옆의 탕화도 갉아먹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충남 공주군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2호)의 지붕은 보수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비가 샌 후속이 역격하고, 정문 아래 쪽 가로목은 흰개미 피해로 추측되는 5cm 크기의 흠이 패어있다. 습기찬 소나무를 쫓는 흰개미의 속성을 생각하면, 마치 앉아 대웅보전 서까래까지도 흰개미의 습격을 예상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의 원목과 오픈목 앞 기둥은 마치 산탄총 맞은 듯 수많은 작은 구멍이 나 있으며, 3m 높이까지 빈 소리가 난다. 이 대웅전은 지금까지 10개 기둥 가운데 4개를 완전 교체했고, 나머지는 기둥 아래쪽을 교체했다. 흰개미의 영향

### 마루·대들보 등 닳치는대로 갉아먹어 관리소홀-마구잡이식 개·보수 '방제 소홀'

**대책은 없나 살충제 훈증처리 일반적 퇴치방법**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99년 초 준공한 귀신사 영산전의 대들보를 흰개미가 계속 파먹고 있어 바닥에 나무가루가 허렇게 뿌려져 있다.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 서 있고 있는 1백30평 규모의 ‘강학당’의 경우 현재 16여억원이 투입돼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사용목재를 방부처리 하지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제대책**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목조건축재가 총체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훈증처리. 이 방법은 흰개미 침투지역을 전으로 완전히 포장한 뒤 살충제인 메틸브로마이드 가스를 수일간 주입, 약제가 흰개미 집까지 침투하도록 해 흰개미를 퇴치하는 것.

그러나 이종훈박사(농학·임업연구원)는 “침투한 흰개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훈증처리 외에는 사실상 보존대책이 없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흰개미는 땅속 50~150cm 깊이에 집을 짓고 근처 수백m까지 원정을 나가 목재를 갉아먹는 습성 때문에 살충제가 흰개미 집까지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관리현황** 문화재청은 '88년 4월 해인사에서 흰개미가 발견된 뒤 일선 문화재관리부 맡은 시·도에 지역 문화재의 흰개미 피해를 유야무야 살피라고 지시했으나 피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할 뿐이다.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이한 대처로 지금도 사찰 목조 문화재들이 흰개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제시가 98년 12월 및 99년 8월 29일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제826호)에 대한 점검 일지에는 ‘이상없다’고 나와 있으나, 대적광전은 현재 흰개미 피해로 기둥과 마루가 기울고 보와 배이 뒤물러 갈라지는 등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 또 문화재청에 등록된 목수들이 흰개미 피해사찰을 개·보수하면서도 흰개미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임업연구소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개·보수 과정을 밟았던 사찰 목조건축물들이 유독 흰개미의 목표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를 대들보를 세울 곳에 소금과 숯을 채워던 선대의 지혜가

### 흰개미 1만~10만마리 집단서식 소나무에 치명적 해충

웬만한 크기의 목조건축물을 두 세달 안에 먹어치울 정도로 무서운 식성을 가진 해충, 흰개미. 이 치명적인 해충은 부드러운 소나무를 유난히 좋아해 대부분 소나무로 만들어진 사찰 문화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흰개미는 1920년대까지 평양·개성 등 이북지역과 서해안에 서식했으나, 현재는 전국 지역에서 출몰하고 있다고 한다. 흰개미는 땅속 50~150cm 깊이에 집을 짓고 근처 수백m 이내에 있는 목재를 갉아먹는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흰개미의 종류는 일본의 규슈(九州) 흰개미, 몸길이 2~3mm 정도로 1만~10만마리 정도가 무리를 이뤄 살고, 번식력 또한 뛰어나다.

따라서 흰개미를 퇴치하려면 땅속의 집을 찾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흰개미의 땅속 집이 발견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종훈박사(농학·임업연구원)는 “흰개미 집단한 한 곳에 분글 30년을 심어 근처 이곳 저곳에 계속 피해를 주는게 속상”이라며 “한때 흰개미 피해를 받았던 곳은 현재 흰개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 봉정사 누각, 앞쪽 기둥이 산탄총을 맞은듯 수많은 작은 구멍이 나있다. 흰개미가 파먹은 흔적이다.

**목조 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사례**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해남 대둔사	천불전(유형문화재)	기둥이 부식돼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짐
남원 실상사	극락전(유형문화재)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기둥 모두 완전 또는 부분 교체
순천 선암사	대웅전(유형문화재)	기둥과 주춧돌 사이 틈 발생
완주 송광사	일주문(유형문화재)	기둥이 부식돼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짐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제826호)	기둥이 기울고 간물이 비뺌됨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제915호)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2호)	정문 가로목 5cm 크기의 흠이 패임
양산 통도사	역사전(유형문화재)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기둥이 기울고 간물이 비뺌됨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기둥이 부식돼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짐



◊전북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제826호), 거의 모든 기둥이 흰개미 피해를 입어 마루바닥의 널빤지가 떨어져 나가고 기울어졌다.

### 마애불을 찾아서

덕주사 마애불

얼굴 고부조로 조각...몸은 선각  
고려시대 거불기법...높이 13m

거대한 양백 남면에 조각된 이 마애불은 전체 높이가 13m나 되는데 얼굴은 고부조로 조각하고 신체는 선각하였다. 긴 눈, 커다란 코, 촉촉한 턱 등은 고려시대 거불조성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으로 비만한 얼굴의 특징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다. 선각된 신체는 평면적인 채구이지만 미량감이 넘치며 통견의 법의는 높여져 힘이 없지만 양다리의 동심타원형 의문 등으로 기하학적인 역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고 있다. 마애불의 양어깨 위 좌우에는 사각형의 간돌(梁孔)들이 남아있어 조성당 시에는 목조전심(木造轉心)이었음을 말해준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에 소재하며 보물 제406호로 지정돼 있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 앞면 달마도 ▲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宗 대조하는 인물로 세달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액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엔에서는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팔면서 '순금카드' 뒤에 새겨서 상품화(상품신안등록 No.8266호)했다. 전안문화 특별보시 보급용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의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대신 율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은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양각으로 탈출시켜 평이하거나 구겨짐이 없도록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봉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이 원하는 사선,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이러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세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물 안에 가까이...**

전화주은 경수주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택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프구역서(27cm×30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대형 율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세트) : 2만원에 판매

●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처: **한국 지엔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영업점 모집